

렇게 두 주일이 흐르자 소년은 더 견디지 못하고 목사님 집에서 도망쳐서 거지 소년들과 합류하게 되었다. 크라바트는 코젤브루흐의 방앗간에서도 언젠가는 도망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음식을 다 먹고 입술을 핥으면서 잠에 푹아떨어지기 직전에 소년은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여기서 도망치려면 여름까지 기다려야 해……. 초원에 꽃이 피고 들판의 호밀이 흰 가루를 날리고 방앗간 저수지에서 물고기들이 뛰놀기 전에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여름이다. 초원에는 꽃이 피고 호밀이 흰 가루를 날리고 방앗간 저수지에서 물고기들이 뛰놀다. 크라바트는 주인에게 야단을 맞았다. 호밀 자루를 옮기는 대신에 방앗간 그늘 아래 풀밭에 누워서 자루를 옆에 둔 채 잠이 들었던 것이다. 크라바트를 찾아낸 주인이 동물 뼈로 만든 지팡이로 그를 한 대 후렷했다.

“혼을 내 줄 테다, 이 녀석. 견습공 주제에 이런 대낮부터 게으름을 피우다니!”

이 모든 것을 참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아마도 칼날 세운 찬바람이 황무지에 휘몰아치는 겨울이었다면 끔찍도 못 했을 것이다. 하지만 주인은 이제 여름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 같다!

크라바트는 결심을 굳힌다. 단 하루도 더 이 방앗간에 머물지

않겠어! 크라바트는 집안으로 몰래 들어가 다락방에 놓아둔 저고리와 모자를 들고서는 살그머니 밖으로 나온다. 크라바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인은 방안에 있고 방의 창문에는 더위를 막기 위해 천 조각이 드리워져 있다. 방앗간 직공들은 헛간에서 일을 하거나 곡식을 빻는 중이다. 뤼슈코조차도 크라바트를 감시할 틈이 없다. 그렇지만 소년은 누군가 자신을 몰래 지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주변을 둘러보니 지붕 널빤지 위에 누군가 앉아서 그를 지켜보고 있다. 털이 더부룩한 검은 수고양이인데 이 근처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꾸눈 고양이이다.

크라바트는 돌을 던져서 고양이를 쫓아 버린다. 그리고 나서 풀숲 사이로 몸을 숨기며 서둘러 방앗간 저수지 쪽으로 달려간다. 우연히 저수지 안을 들여다보니 가장자리에 잉어 한 마리가 떠 있다. 잉어는 크라바트를 향해 애꾸눈을 부릅뜬다.

소년은 섬뜩한 기분이 들어서 돌을 하나 집어 물고기에게 던진다. 잉어는 푸른 물 깊숙이 숨어 버린다.

크라바트는 “검은 물”을 따라 걸다가 코젤브루흐에서는 황무지라고 부르는 지역에 다다르게 된다. 그 곳에서 크라바트는 잠시 동안 툰다의 무덤 곁에 머무른다. 어느 겨울날 직공들과 함께 친구를 이곳에 묻었던 일을 생각하니 소년은 우울한 기분이 된다.

크라바트는 죽은 친구를 생각한다 — 그때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자 소년은 숨이 막히고 막히는 것 같다. 목이 쉼 듯한 까마



귀 울음 소리이다. 황무지 가장자리에 있는 구부정한 소나무 위에
살찐 까마귀 한 마리가 미동도 않고 앉아 있다. 까마귀는 크라바
트를 바라보고 있다 — 까마귀에게도 왼쪽 눈이 없다. 그 모습을
보고 소년은 소름이 오싹 끼친다.

크라바트는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됐다.
크라바트는 더 꾸물거리지 않고 그 곳에서 뛰어 달아난다. 신발
밑창이 견디는 한 “검은 물” 가를 달리고 달려서 앞으로만 나아
간다.

숨이 너무 차 멈춰서 보니 황무지의 풀 사이로 독사 한 마리가
혀를 날름거리고 있다 — 독사도 애꾸눈이다! 덩불 사이에서 크라
바트를 주시하는 여우도 애꾸눈이다.

크라바트는 도망쳐서 달리다가 잠시 숨을 돌린다. 그리고 다시
달리고 달리다 잠시 쉬곤 한다. 저녁 무렵 그는 코젤브루흐의 위
쪽 끝 지역에 도착한다. 들판으로 나오면서 소년은 이제 주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것이라니 하고 생각한다. 크라바트는 두 손으
로 물을 짚어 이마와 정수리를 적신다. 그리고 나서 셔츠를 바지
속에 쑤셔 넣는다. 정신없이 뛰다 보니 셔츠 자락이 바지 밖으로
나온 것이다. 크라바트는 허리띠를 고쳐 매고 몇 발짝을 더 걷는
다 — 그때 소년은 놀라서 어안이 병병해진다.

넓은 들판으로 나왔으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숲 속의 빈터로 다
시 들어선 것이다. 숲 속 빈터 한가운데는 방앗간이 고즈넉한 달
빛을 받고 서 있다. 현관문 앞에서 주인이 기다리고 있다. “어이,

크라바트.” 주인이 비웃는 듯한 태도로 소년을 맞이한다. “마침
널 찾아오라고 사람들을 내보낼 참이었다.”

크라바트는 울화가 치민다. 이런 불상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좋
을지 알 수가 없다. 이튿날 크라바트는 다시 도망을 친다. 이번에는
아주 이른 새벽 이슬도 내리기 전에 출발을 한다 — 전날과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서 숲을 빠져 나가 들판과 목초지를 지난다.
크고 작은 여러 마을을 통과해 지나간다. 소년은 개울을 뛰어넘고
수령을 건넌다. 한 순간도 멈춰 쉬지 않는다. 까마귀와 독사와 여
우도 쳐다보지 않는다. 물고기도 쳐다보지 않고 고양이도 닭도 오
리도 보지 않는다. ‘너희들이 눈이 하나건 둘이건 — 아니면 두 눈
다 먼 장님이건 내가 알 게 뭐냐.’ 크라바트는 생각한다. ‘이번에는
그 따위에 겁먹지 않을 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고 긴 하루가 끝날 무렵 크라바트가 도착
한 곳은 또다시 코젤브루흐의 방앗간이다. 오늘은 방앗간 직공들이
크라바트를 맞이한다. 뤼슈코가 심술궂게 몇 마디를 했고 입을
다문 다른 직공들은 오히려 동정 어린 표정을 짓고 있다. 크라바
트는 절망감마저 느낀다. 크라바트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
는다. 그러나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날 밤에 세번
째로 도주를 시도한다.

방앗간에서 빠져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 북극성을 따라
서 계속 가자! 발을 헛디디건 어둠 속에서 부딪혀 흩이 생기건 살
갓이 벗겨지건 간에. 중요한 것은 그에게 마술을 걸지 못하도록

아무도 그를 볼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까운 곳에서 올빼미가 울고 부엉이 한 마리가 스쳐 지나간다. 얼마 후에 크라바트는 별빛 아래에서 늙은 수리부엉이 한 마리를 본다. 손을 뻗으면 당을 만큼 가까운 가지 위에 앉아 있는 수리부엉이는 오른쪽 눈으로 소년을 바라본다. 왼쪽 눈은 없다.

크라바트는 계속해서 달렸다.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물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동이 틀 무렵 세번째로 방앗간 앞에서 있었을 때 소년은 별로 놀라지도 않는다.

그 시간, 집안은 아무 소리 없이 고즈넉하다. 부엌에서 유로가 일하는 소리만 들린다. 유로는 화덕 가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다. 크라바트는 유로의 목소리를 듣고서 부엌으로 들어간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유로 — 여기서는 도망칠 수가 없어요.”

유로는 마실 것을 주면서 말한다. “우선 좀 씻어야겠구나, 크라바트야.” 유로는 크라바트가 피와 흙으로 더럽혀진 젖은 옷을 벗는 것을 도와 주고 목욕통에 물을 받아 준다 — 유로는 평소와는 달리 바보같이 히죽거리지 않고 아주 진지하게 말한다.

“크라바트야, 너 혼자서 할 수 없었던 일이라도 — 둘이 힘을 합치면 해낼 수 있을지 몰라. 다음 번에는 우리 둘이서 함께 시도해보자꾸나.”

크라바트는 방앗간 직공들이 계단을 올라와 침대에 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잤다. 소년은 입술에 남아 있는 소시지 맛을 아

직도 느낄 수 있었다. 꿈속에서는 이를 밤낮을 보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오래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크라바트는 잠깐 동안 유로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

“꿈에서 당신을 봤어요.” 크라바트가 말했다. “꿈속에서 내게 무엇인가를 제안했어요.”

“내가?” 유로가 말했다. “그래 봤자 어차피 바보 소리나 했겠지 뭐. 크라바트야, 침이나 뒹 뻘고 다 잊어 버려!”